

2020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분석 [국어영역]

1. 총평

3월 서울시교육청 주관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지문을 활용하여 출제되었다. 전체적인 난이도와 경향은 2019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과 비슷한 형태로 출제되었으며 제시문의 정보량이 많고 정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깊은 사고력과 추론을 요구하는 답지들이 많아 2018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보다는 다소 어렵게 느꼈을 것이다.

2. 영역별 세부 분석

가. 화법+작문

화법과 작문은 두 영역을 융합한 유형을 포함하여 10문항을 출제하였다. 화법에서는 1인 말하기(발표문)와 여러 사람의 말하기(토의자료)를 지문으로 구성하여 일반적인 출제 경향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지문은 <화법+작문> 세트형으로 출제된 점도 최근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 및 원리를 바탕으로 구성된 문제들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생태 복원을 통한 환경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학생의 발표에서는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1번), 자료 활용방안 파악하기(2번), 발표에 대한 듣기 활동(3번) 등의 문항이 출제되었다.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는 행사에 대한 기사문 작성’에서는 발화에 대한 의미와 기능을 이해(4번), 담화 구조에 대한 이해(5번),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판단(6번), 조건에 맞는 글쓰기(7번) 등을 출제되었다.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쓰기’를 주제로 글쓰기 전략 파악(8번),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판단(9번), 비판적 관점에서 반박하는 글쓰기(10번)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모든 문항의 유형들이 익숙한 유형의 문제들이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들을 활용한 문제이기에 학생들이 풀기에 큰 어려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문법

제시문 형태의 유형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5문항을 출제하였다. 개념을 선택지에 적용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어, 많은 정보를 적용하여 선택지의 내용을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소 어렵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음운 변동에 대해 설명한 글을 활용해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를 세트 문항으로 묶어 음운 변동 현상 이해하기(11번), 중세국어의 체언에 대해 이해하기(12번) 문항이 출제되었고,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 파악하기(13번), 사전을 통해 어미의 쓰임 이해하기(14번), 문장의 구조 파악하기(15번) 문항이 출제되었다.

제시문의 설명을 토대로 <보기>내용을 분석하는 12번 문항은 연음과 축약, 관형격 조사 ‘ㅅ’으로 실현된 음운들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로 꼼꼼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쉽지 않은 까다로운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의 긴장감을 높였다. 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중세국어’라는 점과 지문 속에 개념이 설명되어 있다는 점 등은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수 있다.

다. 문학

이번 3월 문학 영역에서는 교사나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작품(현대시 문태준의 「극빈」, 현대소설 이청준의 「황홀한 실종」 등)이 출제되었다.

현대시는 「구두 한 켤레의 시」(곽재구), 「극빈」(문태준)이 출제되었는데, 두 작품은 조금 낯설었지만 문제는 평이해서 수험생들이 까다롭게 느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전 시가는 「산민육가」(이홍유), 「유산가」(작자 미상)와 현대 수필 「산정무한」(정비석)이 묶어서 출제되었다. 「유산가」와 「산정무한」은 한자 어휘가 많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문이 생소하여 독해가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문제가 평이하여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 소설은 「황홀한 실종」(이청준), 고전 소설은 「김진옥전」(작자 미상)이 출제되었다. 「김진옥전」은 등장 인물이 매우 많고, 각설과 중락으로 인해 사건의 진행 속도가 빨라 이야기의 흐름과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독서

최근 출제 기조에 맞춰 3지문(인문+과학, 경제, 기술) 15문항으로 출제하였다. 지문의 길이도 길고, 지문에 제시된 개념과 용어들이 지나치게 많았으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

‘조선의 역법 확립 과정’에 대해 다룬 인문+과학의 융합 지문은 자체의 정보량도 많고, 낯선 어휘가 많이 사용되어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높았다. 정보관계가 복잡한 제시문의 주요 정보를 토대로 <보기>를 이해하는 19번 문항은 변별력이 높았다.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및 자본금과 관련된 원칙’에 대해 다룬 사회 지문은 경제와 법 관련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독해와 적용하기 문제 풀이가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OTP 인증 기술의 비동기화 방식과 동기화 방식의 원리’에 대해 다룬 기술 지문은 제시문에서 나타난 원리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았다.

전년도 수능 유형을 반영하여 출제되었지만 독서 지문의 난도가 다소 높고 문학 지문의 친숙도가 낮아 다소 어렵게 느꼈을 것이다.

3. 학습 전략

국어학습은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자신의 능력을 검증하고 부족한 점, 학습 습관, 학습 방법 등을 확인하여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하여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각 영역별로 필수적인 개념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기출 문제를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출제 요소와 빈출 문제 유형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3월 학력평가는 전반적으로 볼 때 변별력을 만드는 고난도 문항은 문법과 독서 영역에서 출제되었다. 이에 비해 화법과 작문, 문학의 문항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다.

‘문법’은 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공부하기도 싫어하는 과목이다. 그러나 ‘독서’와 함께 상위권 등급 변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정도로 고난도 문항이 1문항 정도씩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독서’ 영역은 지문 내의 개념이나 용어들 간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나 상관관계에 관한 정보에 유의

하는 방식, <보기> 안에 들어 있는 그림이나 도표 등을 제시문에 등장하는 개념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문제 등이 고난도 문항으로 자주 출제된다. 독서는 읽어야 할 지문의 정보량이 많고 문제 해결에 활용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영역이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거나 파격적인 제재나 작품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능 유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최근 사회 지문에서 법 분야의 제시문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는 점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수능 연계 교재의 출제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분야가 문학이니만큼 수능 연계 교재의 수록 작품은 특히 완벽하게 공부해 두어야 한다. 소설, 희곡, 시나리오 등은 연계 교재와 다른 부분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기 중심이 아닌 이해와 감상 능력을 향상시켜 처음 보는 지문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대입 지원 전략

2019학년도 수능은 재학생 외에 졸업생 13만 여명이 응시한 시험이었다. 3월 학력평가는 재학생만 응시한 시험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2019학년도 수능에서의 1등급 구분 점수가 84점, 2019학년도 3월 학력평가의 1등급 구분 점수가 82점 수준이었던 점은 응시 집단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3월 학력평가를 응시한 재학생들은 현재와 동일한 실력이라면 수능에서는 3월 성적표의 점수보다 부족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실례로 재학생 일부 표본 조사에서 2018, 2019학년도 수능에서 3월 학력평가보다 수능에서 등급이 향상된 학생은 18~20% 뿐이었다. 반면에 44~49% 정도의 학생들이 3월 학력평가 보다 하락한 등급을 받았다. 이번 3월 학력평가는 2019학년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2019년 3월 학력평가의 원점수와 동일한 원점수를 받았을 때 전년도 수능의 등급이 자신의 등급이 될 가능성이 큼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은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이 합격의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대학들은 3등급 내지 4등급 수준을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능 연계 교재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에 대한 학습과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등급 향상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